

하는 일에 인과 모르면... 그게 어리석음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 환 스님

“인환 스님 뵈러 왔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스님이 거쳐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다. 종무소 보살님께 다시 여쭙는다. “저기 맞나요?”
 설마 저기일까? 상상 속 스님의 처소는 꽤 번듯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인환 스님이 거쳐하는 곳은 입구도 공간도 좁고 천정도 낮았다. 발걸음을 옮겨보니 ‘환희당(歡喜堂)’이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몇 번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돌아서려는 찰나 크게 한 번 더 불러보았다. “스님~!”
 “네~ 들어오십시오.”

찌렁 찌렁한 스님의 목소리는 젊었다. 좁은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렸다. 방안은 책으로 가득했다. 아담한 스님이 객을 맞이한다.

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 말사인 경국사(주지 정산)는 서울 성북동 삼각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국에서 17년 일본과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1982년 지관 스님의 부름을 받고 동국대 교수를 하게 돼 한국에 오게 됐어요. 어디 마땅히 갈 때도 없었고, 마침 이곳 주지였던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함께 있자고 했지요. 이곳은 원래 헛간이었어요. 당시 그린벨트 범이 엄격해서 헛간 크기는 유지하고, 개보수했죠. 벌써 28년이 됐네요. 재주가 없어 다른데 갈 줄도 모르고 이곳에 있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말을 이었다. 지금도 경국사 북쪽에는 지관 스님이 거거하는 무우당(無憂堂)이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남방의 환희세계, 북방의 무우세계에서 착안해 인환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다. 어느 날 지관 스님은 경국사 남쪽에 거거하는 인환 스님의 거처에 환희당이라고 현판을 세웠었다. 좁지 않은가요?

“어떡하나. 복이 그것밖에 없는데, 좁으면 좁은 대로 살고 넓으면 넓은 대로 사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이 화려하거나 넓기를 바랄 것 없어. 좁으니까 청소 자주 안 해도 되고...”

또 한 차례 스님의 웃음소리가 환희당을 메운다.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저리도 호탕하게 웃는 이를 최근 만난 적이 없었다.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바쁘게 삽니다. 무리하게 살지 않고, 또 늙은 몸 애겨 뭐하겠나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늘 갑니다.”
 적. 당. 히. 사는 법은 화두 참선과 식생활 조절에서 비롯됐다.

“웰빙과 웰다잉은 평소 자기에 맞게 생활리듬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병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변화가 빠르고 온갖 정보가 범람합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떠달려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리판단력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또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체식에 익숙한 한국인의 몸에 적응이 되지 않아 병이 납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듯한 이야기도 스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새롭게 들린다. 몸으로 체득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야기 중간 중간 “뽀너스”를



대·서울 조계사불교대 등에서 불교학 강의를 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대경원장에 임명됐다.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바쁘게 삽니다. 무리하게 살지 않고, 또 늙은 몸 애겨 뭐하겠나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늘 갑니다.”

적. 당. 히. 사는 법은 화두 참선과 식생활 조절에서 비롯됐다.

“웰빙과 웰다잉은 평소 자기에 맞게 생활리듬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병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변화가 빠르고 온갖 정보가 범람합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떠달려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리판단력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또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체식에 익숙한 한국인의 몸에 적응이 되지 않아 병이 납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듯한 이야기도 스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새롭게 들린다. 몸으로 체득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야기 중간 중간 “뽀너스”를

일러줬다. 명심 하면 득을 보게 된다는 당부와 함께.

“치매에 안 걸리고 살다가 고생안하고 슬쩍 가고 싶다고 푸념을 합니다. 세상에 바라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은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생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인과를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으로 탐진치(貪瞋癡)를 꼽습니다. 사람들은 삼독 중에서 ‘치’ 어리석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다른 학식, 지식이 있고, 총명하고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는 일에 있어 인과를 모른다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힘이 들어간다.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관계 속에서 성립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회에 이로운 일을 주도해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

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고 잘 못하는데 나만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방에는 고요할 정(靜)과 인내할 인(忍)이 적혀있다. “항상 시간이 있을 땐 고요히 앉아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한가하게 남의 이야기 험담을 하지 말아라.”

#동국대와 스님

동국대는 스님에게 친정이다. 인환 스님은 1982년 2월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 부교수로서, 동국대 정각원 원장을 6년간 맡아왔다. 서울 승가대 강사로도 14년간 활동하고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15년을 지냈다. 동국대 석립회 지도교수, 불교대학 학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대학원 교무위원 및 강사 등을 지냈다. 인환 스님은 3월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대경원장에 임명됐다. “나가서 실무를 봐야 알겠습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지만 스님은 의욕적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불교문화연구원, 불전연구원, 역경원, 중학연구소가 별개로 활동하던 것이 유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 졌죠. 동국대 내를 아는 동국대 출신인 제가 유기적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어줘야 하겠죠.”

학술원에 소속된 교수는 물론 연구 분야도 늘었다. 스님은 양적 증가만큼 질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 학술원에서 나온 논문집을 학진 등재지로 만들고 신진학자의 논문발표도 늘리는 등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갈 뜻을 밝혔다. 또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티베트 등 동남아 계통 불교 연구도 추진하는 등 연구범위를 세계적으로 확대한다.

역경원 사업에도 스님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었다.

“동국대 역경원에서는 전산화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경원은 경전 편찬과 후원 등을 통해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학술원장이 역경원장을 겸하게 된 데에는 학교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전산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환 스님은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라고 말한다.

“한국불교에서 인재양성의 요람은 동국대입니다. 불교문화 연구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되면 관심을 가지는 학생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갈 때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학생으로 유명한 만큼 학생들에게 참선 실수를 가르치기 위해 부단 애를 썼었다. 불교대 졸업 교양 필수 과목인 ‘참선 실수’를 만들고 직접 지도했다.

“한 강좌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죠. 개인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양식이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쉽게 참선 기초법을 강의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참선 실수 강좌는 처음에는 수업이 인기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학생이 늘었다.

“화두선을 하는 한국불교가 세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전통과 전문 선원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한국불교를 하는데 있어 처음 초발심을 낸 초보자를 위한 매뉴얼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인환 스님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야간 불교대는 물론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도 ‘참선 실수’를 교육했다. 내무부, 금융연수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 각국 대사관, 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도 강의를 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심시간을 훌쩍 넘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한 끼쯤 굶었다고 나가자빠질 만큼은 아닙니다. 기력이 됩니다.”

그리고도 스님의 법문은 이어졌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격 받지 마세요. 충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팍팍 공격해 만들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주범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즐겁게 사세요. 자~ happy end.”

스님과 경국사를 나왔다. 스님은 아직까지 휴대전화도 자동차도 없다. 중간 중간 만나는 불자들에게 ‘어서오세요~’ ‘조심히 가세요~’라며 정다운 인사도 아끼지 않는다. 따뜻한 청춘 인환 스님의 인사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인 환 스님은...

1931년 원산 출생, 1952년 부산 선암사 소림선원에서 출가 득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자운 스님을 보살계 수지, 1955년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수학, 195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59년 해인사·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

1964년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1966년 동국대 대학원 졸업, 1970년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선학전공 박사, 1975년 일본 도쿄대학 인도철학전공, 문학박사 학위 수여, 1982년 동국대 교수, 1996년 동국대 정년퇴임했다. 동국대 교수직 정년퇴임 하면서 불거시면서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며 청빈의 삶을 살았다. 현재 서울 삼각산 경국사 한주로 있다.

BTN불교TV가 만든 인터넷 쇼핑물 '산사에'

네이버 검색창에 '산사에' 를 치세요. 검색

무릎과 허리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108배 수행을 도와줍니다.
 좌선 및 참선 시 자세를 편하게 잡아줍니다.
 천연라텍스로 꺼짐이나 패임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

천연 라텍스 절방석

BTN불교TV
광고방송 중!

1. 최상의 천연라텍스만을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천연라텍스(NR, 고무원액)를 태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2.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고무원액만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모든 제조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식의 걸레버와 속커버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진드기, 곰팡이 NO! 뛰어난 항균성!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고무성분으로 진드기, 곰팡이 및 세균서식이 불가능한 뛰어난 항균성을 자랑합니다.

4. 108배 시 충격 최소화
 탄력성 및 압력 분산성이 우수하여 절운동 시 하중 및 충격을 최소화 해주어 허리, 무릎관절 등 신체부위를 보호합니다.

5. 완벽한 통기성과 복원력
 천연라텍스 절방석은 고품질 제품으로 단위면적당 수심면적의 승수는 공기방(Air Cell) 구조로 인하여 완벽한 통기성 및 복원력을 지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발판으로 방식의 사용을 용이하게!
 발판을 추가하여 방식의 깊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접어 사용하면 정사만 참선에도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게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천연라텍스 절방석+라텍스 베개+나를 깨우는 108배 CD +기도포

169,000 원

주문전화 **080-780-0108**

대량 주문시 가격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산사에 02)3270-3359 / 상담시간: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인터넷 쇼핑물 www.sansae.co.kr